



주 제:	“증거자의 삶”	“주님 세례 축일”	2008년 1월 13일
복음 묵상:	마태 3,13-17	이사 42,1-4.6 -7	사도 10,34-38

아무리 미사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당신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성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말입니다.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려는 바로 그 곳에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품위를 부여하시고, 그 부르심을 실현할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 가려놓았다면 그 커튼을 찢어보십시오. 그 커튼을 찢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유혹이나 욕망이 밀려오더라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진정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장 준혁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10 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다음 주(1/20)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부디 어렵지만,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봉헌하며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연습시간은 **아침 9:15 부터 1 시간(당일 미사곡 및 화답송 연습)**

중식: 11:45 30 분간.

오후 12:15 부터 1 시간 반; (부활절을 위한 성가 연습)

2) 2008년 수고해 주실 성심 성가대 임원.

지휘자: 김 인숙 세실리아, 반주: 최 상진 엘리자벳,
단장: 김 지만 토마스, 총무: 허 경예 수산나,
회계: 이 흥진 데레사, 악보장: 박 영아 소피아
소프라노: 이 은순 아네스, 알코: 김 재훈 세실리아,
테너: 최 주남 예로니모, 베이스: 신계완 대건안드레아,

3) 임원 회의

1월 13일(일) 교중 미사후 부활절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임원회의**가 미사가 끝난 후 연습실에서 찾아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월 18일은 (오후 7시) 성당에서 **영성 특강 및 봉사자 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모든 성가대원들은 봉사자 총회에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분 명상

" 당신 때문에... "



힘들어 하지 마세요,
 좌절 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당신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맞이꽃 님>